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광주염주종합체육관에서 한국과 일본 여자프로배구의 최강자를 가리는 V-리그 탑매치가 열렸다. 1승1패를 기록한 흥국생명이 접수득실률에서 앞서며 우승을 차지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한·일 탑 매치’ 광주 팬들은 반했다

김연경·데라크루즈 등 스타들 팽팽쇼 열기 흥빡

“수준 높은 국제경기” 찬사…1만여 배구팬 열광

국생명, 데라크루즈(GS칼텍스) 등 용병들의 눈부신 활약에 관중들은 더욱 경기를 만끽했다.

또한 일본팀의 투혼에도 아낌없는 격려와 박수를 보내는 수준 높은 응원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밖에도 경기장 흥미를 돋우는 또 다른 요인은 즐거운 응원.

흥겨운 치어리더들의 율동과 북소리에 맞춰 관중

들은 경기장이 울릴 정도로 풍선막대를 두드리며 응원에 열기를 더했다.

그리고 작전타이밍이나 세트가 끝난 휴식시간 동안에도 관중들이 지루하지 않도록 흥겨운 음악과 다양

한 불거리도 제공해 매끄러운 경기운영이 돋보이기도 했다.

이날 경기장을 찾은 관중들 중 특히 가족 단위 관

중들이 많았다.

어머니와 부인, 자식과 함께 경기장을 찾은 이관삼(34·백운동)씨는 “아외 나들이 대신 경기 관람을 택했는데 정말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와 애들이 즐거워하니 더욱 마음이 기쁘다”면서 “앞으로 이런 수준 높은 국제경기를 광주에서 자주 볼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부모와 함께 배구경기를 본 서동휘(교대부속조)군은 “TV에서만 보면 선수들을 직접 봤더니 정말 키가 더 크네요. 응원도 재미있어 즐거웠어요”라며 한껏 들뜬 표정이었다.

광주 스포츠 팬들은 이처럼 즐겁고 스릴 넘치는 스포츠 대회가 광주에서 많이 열렸으면 하는 희망을 내비쳤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수비 달인

158cm 사노·159cm 나카미치

눈부신 활약 팬들 박수갈채

이번 대회에서 유독 키가 작아 눈에 띠는 일본팀 두 선수와 관중들의 시선을 끌었다.

비록 이들이 단신이지만 경기력만큼은 여느 장신 선수 못지않은 뛰어난 기량을 선보여 많은 박수 갈채를 받기도 했다.

그 주인공들은 바로 신장 158cm의 히사미즈 히토미(31·원쪽) 선수와 신장 159cm의 토레이 세터 나카미치 히토미(25·오른쪽) 선수이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4개팀 중 160cm 이하의 작은 선수로 코트에서 장신의 선수들 속에서는 더욱 작아보였다.

물론 이들이 공격력은 약하지만 수비와 토스에서는 관중들도 감탄할 정도로 눈부신 활약을 보였다. 특히 히사미즈의 사노는 팀 공격때는 네트 앞에서, 그리고 수비때는 빙고를 찾아 상대의 공격을 가볍게 받아내는 ‘수비천재’였다. 19일 GS칼텍스전에서는 용병 데라크루즈의 강타를 6개나 받아냈으며 자신의 팀 선수 몸 맞고 코트 밖으로 나가는 불을 몸을 던져 구해내는 등 화려한 플레이를 펼쳤다.

경기 후 사노는 “경기장 분위기가 일본과 달라 적응하기 힘들었다”면서 “수비 전문이기에 경기가 없는 날엔 개인적으로 수비훈련시간을 갖는다”고 밝혔다.

한편 토레이 히토미 선수도 세터로서는 단신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불을 배급해 득점의 중추적인 역할도 했다.

이제껏 장신들만의 전유물처럼 생각되었던 프로배구에서도 키 작은 선수들이 맹활약을 펼치는 모습이 관중들에겐 또 다른 불거리로 떠올랐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흥국생명 한·일 배구여왕

8전8패 수모 설욕 한국 첫 우승…MVP 김연경

프로배구 흥국생명이 한국과 일본의 통합 힘피언이 됐다.

2008-2009 시즌 프로배구 여자부 힘피언인 흥국생명은 19일 광주 염주종합체육관에서 계속된 2009 한·일배구 탑매치에서 일본 여자배구 1위팀 토레이에로우즈에 세트스코어 1-3(27-29 25-23 23-25 23-25)으로 패했다.

흥국생명은 나머지 3팀과 함께 1승1패 동률을 이뤘지만 승률이 같을 경우 접수득실률로 순위를 따지는 대회 규정에 따라 우승을 차지하며 상금 2만 달러의 부수입도 횟졌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한일배구에서 국내 여자팀이 우승한 것은 처음이다.

흥국생명은 국내 프로배구 힘피언에 이어 양국 왕중왕전 성격의 탑매치에서도 우승하면서 명실상부한 최고 구단으로 등극했다.

우승은 했지만 아쉬움이 남는 경기였다. 흥국생명은 세트스코어 1-1에서 맞은 3세트 23-21로 앞서다 상대방에 4점을 내리 내주면서 역전패했다.

흥국생명은 4세트 중반 12-16까지 뒤집어 패색이 짙었지만 이후 김연경과 카리나가 블로킹과 공격을 연속 성공시키며 22-20으로 경기를 뒤집어 승부를 5세트까지 끌고 가는 듯 했다. 그러나 이후 토레이의 주포 장웨홍(29득점)에게 4점을 연속 허용하면서 아쉽게 경기를 내줬다.

일본이나 이탈리아 진출을 희망하고 있는 흥국생명의 주포 김연경은 전날 31점을 펴온 데 이어 이날도 24점을 기록하는 맹활약으로 일본 프로배구계에 확실하게 눈도장을 찍었다. 힘피언결정전 최우수 선수인 김연경은 대회 최우수선수(MVP)로도 선정돼 상금 3천 달러를 받았다.

앞서 열린 GS칼텍스-히사미즈 스프링스 전에서는 GS 풀세트 접전 끝에 2-3(25-23 15-25 21-25 25-18 9-15)으로 패했지만 역시 접수득실률에서 일본팀들을 앞서면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준우승팀에는 상금 1만달러가 수여된다.

올해로 3회째인 2009 한일 탑매치는 한일 프로배구 1, 2위 팀이 출전해 상대국 팀과 각각 한 차례씩 경기를 치러 승부를 가리는 대회로 순위는 승률-접수득실-세트득실 순으로 정한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제2회 광주일보 사장(사진 왼쪽)과 고광삼 광주시 배구협회장이 대회 MIP로 선정된 토레이의 키우라 사오리에게 트로피와 상금을 전달하고 있다.

/워킹기자 jrwi@kwangju.co.kr

■ 이모저모

‘배구계 산 증인’ 손철 박사 경기장에

○ 한국배구계의 산증인인 손철 박사(전남대 의대 명예교수)가 경기장을 찾아 배구 관계자들이 놀라움과 함께 반가움을 표시했다.

9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훈사자로 경기장을 찾아온 손박사는 “모처럼 광주에서 배구경기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반가운 마음에 이렇게 오게 됐다”고 밝혔다.

고광삼 광주시배구협회장을 “손 박사가 경기장을 직접 오시다니 고맙고 대회를 더욱 빛내주신 것이다”고 말하면서 “손 박사는 대한배구협회장을 역임하셨고 전남배구협회 초대회장도 맡으셨다”고 설명했다.

배구협관계자 “구름 관중 깜짝”

○ 이번 대회를 주최한 광주시배구협회관계자들이 이를 간 물려든 관중들의 배구열기에 깜짝 놀랄 정도였다고 밝혔다.

동원 관중없이 4~5천여 관중이 물려 들자 배구협관계자들은 “물론 많은 관중들이 찾아주리라 생각했지만 이렇게 많이 올것이라고는 예상 못했다”며

“앞으로도 광주팬들을 위해 기회 있을 때마다 수준 높은 경기를 유치해야겠다”고 다짐.

광주 출신 박미희씨 해설가 활약

○ 광주여상 출신의 ‘코트의 여우’ 박미희(48)와 전 국가대표 주포 김세진(35) 등 옛 배구스타들도 해설가로 V-리그 탑매치에 참석해 배구 팬들의 눈길을 끌었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